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반복된 시

(시 53:1-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시인은 구원이 시온에서 미래에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 곧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모든 죄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53편은 14편의 시가 반복된 것으로 5절의 마지막 3절과 약간 변형된 것 외에 거의 같은 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 가운데 중요 부분은 로마서 3:10-1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약간의 차이

시편 14편과 53편에는 표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행함은 14편에서는 행실로, 3절에서 각기 물러가 함께는 14편에서 다 치우쳐로,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14편에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형은 의미는 틀리지 않으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있어서도 14편에서는 엘로힘이 3번, 여호와가 4번 나오는 반면 53편에서는 매번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3편에서 중요한 변형은 14편 5-6절을 대신하여 채운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흡으심이라”(5절).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가운데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원수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을 격멸하며 승리를 외칩니다. 적들은 이스라엘을 진쳤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격멸하시고 그들의 뼈를 흡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이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2. 어리석은 자와 그들의 어리석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시14:1).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편 14편 1-3절을 인용하면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주경신학자 Matthew Henry는 죄의 성격, 열매, 결과를 F자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① 죄의 진상(the fact of sin):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시 14:3).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외는 없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 ② 죄의 결점(the fault of sin):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1절). 하나님이 없다고 한 죄인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자며 다른 사람을 먹으며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은 부패하고, 이웃에게는 공격적입니다.
- ③ 죄의 근원(the fountain of sin):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른적 무신론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역사의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든 말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게

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 ④ 죄의 우매성(the folly of sin): 우리가 알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날날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다면 그 날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 ⑤ 죄의 불결함(the filthiness of sin): 죄의 속임수는 겉으로는 아름답고 바람직하나 그 내면은 추악하고 파괴적입니다. ‘부패하며 가증한’이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이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롬 6:23).
- ⑥ 죄의 열매(the fruit of sin):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4절).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착취하기를 일상으로 여기며 습관적으로 범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합니다.
- ⑦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함(the fear and shame that attends sin):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마지막에 가야 할 길은 공포와 수치입니다.

3. 이스라엘의 구원을 빌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6절).

시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시온에서 기도합니다. 시온은 왕도며 성도로서 다윗은 이 도성의 지도자인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변화해야 이스라엘에 구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백성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회개나 구원을 대외용으로만 남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판 배신자는 제자 가룟 유다였고,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죽인 집단도 종교개혁을 전후한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타락한 선민들을 구출하여 선민 본래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구원이 시온에서 미래에 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 곧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날에 모든 죄는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 지혜 있는 자처럼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영원히 구원주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새 번역 사도신경 전국 노회 수의 통과

- 2/3 훨씬 넘는 찬성으로 -

새 번역 사도신경을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해 91회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으나 헌법상 교리부분으로 분류되어 각 노회 2/3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총수의 2/3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는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 63개 노회에서 지난 봄 노회 시 수의 투표를 행한 바 있다.

총 63개 노회 중 사교노회로 간주된 제주노회와 인천 동노회를 제외한 61개 노회가 투표한 결과 57개 노회가 찬성을 했고 총 투표자 12,112명 중 10,802명이 찬성함으로써 2/3이상의 가표가 있어 총회 임원회는 오는 9월 총회에 보고한 후 공포하기로 하였다.

새 번역 사도신경은 주기도와 함께 우리교회 당회의 현의로 새 번역 특별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운 목사)를 조직하여 한기총과 KNCC가 함께 공포한 바

있다.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서울교회는 현재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크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신학을 정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총회표준주석편찬', 교역자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항상 몸과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는 목사복제정, 타락한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혼관과 혼전순결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순결서약식', 복음으로 재소자를 교화하여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얻도록 하는 '기독교 교도소 설립' 등 우리교회와 이종운 담임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은 손을 꼽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새 번역 사도신경의 완전통과로 성도의 기도 열매가 또 하나 맺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제9대 장로후보로 20명 선출되다

5월 27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

지난주일(13일) 찬양예배 후 실시된 특별 제직회에서 제9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행한 바 있다. 당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주일 밤에 집계를 실시하여 당회에서 인준을 하고 20명의 후보를 오늘 순례자에 발표한다.

5월27일 주일에는 제9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어 오늘 순례자에 발표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2/3이상 득표자 중 10명을 선출하게 된다.

10명을 선출하는 9대 장로 선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로이 진행되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와 성도 앞에 덕을 세우도록 기도한다.

후보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2007년 하반기 선교사 6명 선발

11월25일(주) 교회설립기념주일 파송예정

전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는 우리교회는 2007년 하반기 선교사를 선발하기 위해 교계신문을 통해 공모하여 응시한 선교사 후보를 대상으로 2차례 면접을 실시하여 4가정(6명)을 선발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선교사들은 앞으로 우리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11월25일(주) 교회설립기념주일에 파송식을 갖고 파송될 예정이다. 선발된 선교사들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차 KIMCHI 세미나 1주 앞으로

제15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15차 KIMCHI 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영기 장로)는 그동안 모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되는 국가는 터키로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이지만 첫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이슬람에 사로잡힌 나라이다. 얼마 전에는 터키 동부도시 말라티아에서 급진 이슬람교도들이 성경을 보급하던 터키 기독교인 2명과 독일인 선교사 1명의 손발을 묶은 채 목을 잘라 살해하는 참극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교묘하고도 잔인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고 복음도 공개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곳이다.

이러한 핍박의 땅에서 27명의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이 10일간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신학과 선교전략, 새벽기도와 다락방모임을 공부하고 체험하며 토론한다. 멀리서 어렵게 오시는 터키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든 성도가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 편안하게 우리교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봉사도 협력을 바란다.



1. 박진아 목사(670303)
지원국: 캄보디아
숭실대 사학과(B.A), 장신 신대원(M. Div), 장신신교대학원(Th. M.)
무학교회, 송정교회, 서소문 교회 시무



3. 김영호 전도사(640510), 서향정 사모(670729)
지원국: 러시아
김영호 전도사: 경북대 정외과(B.A), 경북대 대학원(정치학 석사)
서향정 사모: 계명대 영문과(B.A), 계명대 대학원(영문학 석사), 계명대 국제교육원, 스와튼 외국어학원 강사



2. 우상식 목사(621101), 김정옥 사모(641222)
지원국: 인도
우상식 목사: 한남대 기독교학과(B.A), 장신 신대원(M. Div), 장신목회전문대학원(Th. M.)
문성교회, 증평제일교회, 천안삼거리교회 시무
김정옥 사모: 충남대 영문과(B.A), 보은 여자 중교교 교사



4. 김태식 목사(631020), 김미경 사모
-군선교사: 육군 탄약사령부 제2탄약창
김태식 목사: 대구신대(B.A), 장신 신대원(M. Div.)
대구성우교회, 한마음 군인교회 시무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맞이하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 주제성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 2:2)

- 주제찬송 : 278장(사랑하는 주님 앞에)

- 일 시 : 2007. 5. 24 (목) 09:30~18:00

- 장 소 : 안산공대 종합체육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71번지 (031-49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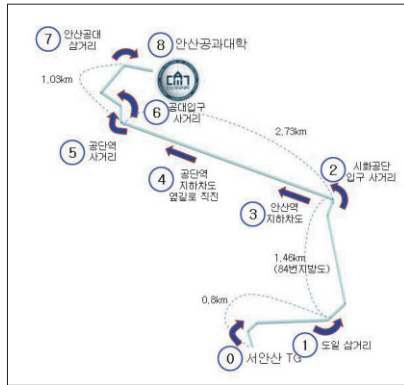
- 교통편 : 각 구구별로 선정된 단체버스 이용자(살롱권사 등)를 제외한 전 성도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 지하철: 4호선 안산 공단역 1번 출구에서 시흥방향 5분 거리(셔틀버스 운행)

* 차량 이용 시 오시는 길

오시는 길

1.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로 빠져나온 뒤 서안산(남시흥)TG에서 요금 내고 나오자마자 첫 갈림길에서 오른쪽 길로 가면 도일삼거리가 나타나고 여기서 좌회전.
2. 84번 지방도를 타고 약 1.5km 직진, 시화공단 입구 사거리 나타나면 또 좌회전 함.
3. 중앙로를 타고 0.2km쯤 가다 안산역 지하차도가 나타나면 지하차도로 들어감.
4. 약 1.9km 계속 직진하다 오른쪽 공단역, 1차선엔 다시 지하차도가 나타나는데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말고, 오른쪽 길로 직진할 것.
5. 공단역 지하차도 끝나는 곳에 공단역 사거리 나오면 우회전.
6. 200미터 직진해 공대입구 사거리가 나오면 좌회전.
7. 1km쯤 직진하면 오른쪽에 안산공대가 보임.
8. 안산공대 도착



오정수 장로

(제7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 준비위원장)



신록(新綠)의 5월은 항상 설레는 계절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녹색의 나뭇잎들이 파릇파릇 돌아온 천지를 푸르게 푸르게 채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은 어린이도 아버지도, 온 가족이 주인공 되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뜰한 사랑을 나누는 5월, 이렇게 즐겁고 좋은 날에 서울교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여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2:2)”라는 이번 축제의 주제 성구처럼 서울교회 온 식구들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나누며 안산공대 체육관에서 환희와 감사가 넘치는 천국잔치 한 마당을 펼칠 것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펼치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재롱도 보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도 듣고, 젓 먹던 힘까지 내어 콩 주머니를 던지는 엄마, 퍼낸 힘줄 솟은 팔뚝으로 ‘어영차’ 줄을 당기시는 아빠, 집사님, 그리고 백발의 할머니 권사님들의 몇 자랑까지... 온 성도는 웃음과 감탄, 환호성을 그치지 어려울 것입니다.



십사일반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시상품 가지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 시상품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제 기획과 준비는 서울교

회의 미래요, 얼굴인 대학, 청년부의 “푸른” 젊은이들이 준비를 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장년층을 돕는 청년들이 아니라 교회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책임 있는 성도의 자세가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축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감사와 기쁨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만 남았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더 큰 기쁨, 더 큰 즐거움을 맞보시려면, 더 큰 가족들이 기다리는 이곳으로 달려오십시오. 여기는 서울교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의 천국 잔치 현장입니다.



- 준비물 : 운동화, 체육복(단체 유니폼은 별도로 없습니다.)

청팀(1-7교구)은 청색 계통, 백팀(8-14교구)은 백색 계통의 옷을 입고 오세요.

- 중 식 : 이종윤 목사님 · 홍순복 박사 결혼 40주년을 감사하며 제공하십니다. (개별 도시락 안 싸오셔도 됩니다.)

- 행운권 상품(기증물) : 김치냉장고(1), 노트북(1), PSP(2), MP3(10), USB(20), 밥솥(3) 커피메이커(5), 자전거(2), 축구공(10), 농구공(10), 배드민턴라켓(10), 스피리스 다용도포켓(200), 양복 (1벌), 화장품(다량), 스탠드(30)

- 경기종목 :

1. 큰 공을 굴리자! ··· “손소로! 배로! 엉덩이로!”
2. 동역자를 찾아라 ··· “뚝사님 어디계세요?”
3. 박 터뜨리기 ··· “콩 주머니로 흥부네 박술!”
4. 족구 페스티발 ··· “뚱뚱치기로 강스파이크!!”
5. 전략 줄다리기 ··· “어느 팀 줄이 많나쇼?”
6. 장애물 달리기 ··· “구르고, 터널 통과하고, 과자 따먹고...”
7. 지구 색을 바꿔라 ··· “지구는 청색일까? 백색일까?”
8. 청소년 농구대회 ··· “하늘 높이 날아들것쇼!!!”
9. 한마음으로 줄을 넘어라 ··· “권사님도 주일학교 학생도 한마음으로!”
10. 미션을 수행하라 ··· “헉... 너무 어려운 사명...??”
11. 젓먹던 힘으로 줄을 당기자 ··· “어영차 어영차!”
12. 앞만 보고 달려라 ··· “작판 역전승 향해!”

제9대 장로후보 명단

(13일 제직회 득표 순)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갑진 (1944) 수세년도: 59년 · 봉사 부서: 비전2020위원장, 장년3부교사, 베들레헴 · 학력: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국제정치학) · 직업: 대한축구협회부회장, 한동대·포항대 초빙교수 · 가족사항: 박우주권사(명중,장식)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인선 (1949) 수세년도: 63년 · 봉사 부서: 새가족부감, 의료선교회장, 베들레헴 · 학력: 대학원졸(의학박사) · 직업: 의사(동서요양병원) · 가족사항: 남태순권사(영인,혜심,상영)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광환 (1950) 수세년도: 68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장년1부장, 베들레헴 · 학력: 대학원졸 (경영학 석사) · 직업: (주) UCP 이사 · 가족사항: 이안순권사(세정,세인)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돈 (1941) 수세년도: 57년 · 봉사 부서: 선교위원, 장년부교사, 상담부, 은빛찬양대 · 학력: 대학원 (coaching academy) 재학중 · 직업: 일신전자산업(주)임원 · 가족사항: 김경희권사(영아,희라,경민)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명주 (1940) 수세년도: 75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소요리문답부장 · 학력: 대졸 · 직업: 자영업 · 가족사항: 이혜순권사(성은,한성,지윤)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금준 (1959) 수세년도: 74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차량부감, 고등부교사 · 학력: 대학원졸 (MBA) · 직업: 국민은행 부지점장 · 가족사항: 이현주집사(명은,명석)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경준 (1942) 수세년도: 60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신앙강좌부교사, 선교위원회간사 · 학력: 대졸 · 직업: (주) 정진탁스공업대표이사 · 가족사항: 전정숙권사(정한,영한) 	<p>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형철 (1939) 수세년도: 78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헌금계수 · 학력: 대졸 · 직업: 삼진상사 대표 · 가족사항: 신동기권사(화영,광현)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동호 (1958) 수세년도: 86년 · 봉사 부서: 대학부교사, 식당봉사, 도서실장 · 학력: 대졸 · 직업: 후생 약국 경영 · 가족사항: 김정임권사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춘경 (1948) 수세년도: 62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디아스포라부장, 스테반회총무, 베들레헴, 전도위원 · 학력: 대졸 · 직업: 동광밸브공업(주)대표 · 가족사항: 이인숙권사(세정,세인)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형열 (1954) 수세년도: 73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찬양위원회간사, 할렐루야,시온 · 학력: 대학원졸 (교육학 석사) · 직업: 초등학교 교감 · 가족사항: 김찬진권사(을,아영,정신)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광성 (1949) 수세년도: 65년 · 봉사 부서: 유년부장, 베들레헴, 목회자신학세미나 · 학력: 산업대학원 수료 (최고지도자과정) · 직업: 이지비이코리아(주) 대표 · 가족사항: 이정연권사(지유,유연,소윤)
<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형택 (1943) 수세년도: 79년 · 봉사 부서: 시온찬양대부대장, 베들레헴 · 학력: 대학원졸 (경영학 석사) · 직업: 농장경영 · 가족사항: 윤갑숙권사(범구,성구)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계홍 (1950) 수세년도: 78년 · 봉사 부서: 어린이찬양예배부장 · 학력: 중졸 · 직업: 식당경영 · 가족사항: 성순자집사(승범,종범,조은)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옥군 (1945) 수세년도: 78년 · 봉사 부서: 에비다부감 · 학력: 대졸 · 직업: 자영업 · 가족사항: 박영자권사(승환,창환,지환)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유식 (1946) 수세년도: 83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차량부지장, 선교위원회회계, 베들레헴 · 학력: 고졸 · 직업: 경희공내외장건설이사 · 가족사항: 이봉규권사(숙영,지영,재영)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동완 (1948) 수세년도: 79년 · 봉사 부서: 경로대학, 상조부차장, 헌금계수위원, 베들레헴 · 학력: 대중퇴 · 직업: 자영업 · 가족사항: 이순희권사(건영,일영)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양진 (1952) 수세년도: 77년 · 봉사 부서: 유치부장, 비전2020위원, 베들레헴 · 학력: 대졸 · 직업: 대우전자감사실부장 · 가족사항: 강윤숙권사(강현,기원)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규태 (1953) 수세년도: 67년 · 봉사 부서: 다락방장, 그레이스앤드벨로이어부장, 비전2020위원 · 학력: 대졸 · 직업: (주)태산스페이스 대표이사 · 가족사항: 박미혜권사(성환,연경)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지원 (1950) 수세년도: 79년 · 봉사 부서: 장년부교사, 신앙강좌부교사, 베들레헴 · 학력: 대학원 재학중 (신학대학원) · 직업: (주)방림 사외이사 · 가족사항: 정옥희권사(서윤,서경)

▶ 캄치세미나 - 터키 알아봅시다



21C를 향한 우리의 도전

터키는 소아시아 반도에 위치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있는 나라다. 로마시대부터 1100년 가까이 기독교문화를 지켜온 동로마(비잔틴)제국이 있던 곳이었지만, 15세기경 오스만제국이 이곳을 점령한 뒤로 이슬람 문명이 크게 확대됐다. 지금 터키는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국가다. 하지만, 올해 초 한기총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터키에 사는 한인 선교사 수는 350여명으로 전체 나라들 가운데 한인 선교사 수가 열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터키는 신앙인이 너무도 잘 아는 성경상의 여러 지명이 고스란히 있는 곳이어서 크리스천들이 자주 찾는 나라다. 구약시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아라랏산을 비롯해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 하란,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바울의 고향인 다소,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그리고 안디옥 등이 모든 곳이 터키에 있다.

또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네로황제의 박해를 피해 약 250년 동안 은둔했던

로마시대부터 1100년 가까이 기독교문화를 지켜온 비잔틴제국이 있던 곳
 지금은 기독교 유적 보다 이슬람 유적이 더 많은 나라



동굴 교회 갑바도기아가 있는 나라이다.

지금은 기독교 유적 보다 이슬람 유적이 더 많이 눈에 띄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숨겨진 귀중한 성지들을 하나 둘 짚어보는 일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터키다.

* 터키 개황

- 수도 : 앙카라(260만명)
- 인구 : 약 6천 785만 명
- 면적 : 77만 9천 평방킬로미터 (한반도의 3.5배)
- 민족 : 터어키족(90%), 쿠르드 및 아랍족(10%)
- 기후 : 지중해 연안지방의 전형적인 온난성 기후대
- 종교 : 전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도(수니파), 기독교, 유대교, 그리스정교 등이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다른 이슬람국가에 비해 종교적 규율 적용에는 엄격하지 않은 편이나, 라마단 등 이슬람 전통과 관행이 여전히 중시되고 있음.

▶ 만민에게 전도 - 선교지 소식

라오스 선교정탐 보고

이제울 선교사(캄보디아 선교사)

지난 4월 23일부터 5일간 저는 캄보디아 한인선교사 4분과 함께 MCF(기독교인회) 설립의 건과 MEO(군내 영어캠프)의 자국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라오스를 방문, 복음주의협의회장(K 목사)을 면담했습니다.

라오스의 복음주의협의회장은 지난 해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영어캠프를 주관한 적이 있는 분으로 2004년 서울교회의 KIMCHI 세미나에 라오스 대표로 참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호의적으로 우릴 맞아주셨습니다.

먼저 MEO 프로그램에 라오스 군인 2명을 참가시킬 것을 제안하자 목사님은 대답을 자꾸 회피하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총회장의 결심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더니 마침내 승인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독교인회 설립에 관해서는 기존 설립국가들의 자국내 활동 및 대외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2004년 세계기독교인대회 DVD를 시청한 후 목사님과 단들이 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구체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팅을 미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MEO 프로그램에 참가자 2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일행은 이들을 면담했습니다. 한 명은 군의관 출신 예비역 대위인 여군이고, 다른 한 명은 예비역 중위 출신으로 현재 복음주의협의회장이 사역하는 교회의 부목사입니다. 어쨌든 참가신청서가 무사히 접수될 때까지 서울교회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라오스의 MCF 설립을 위한 총회장의 승인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계셨습니다. MCF 설립에 관한 대화를 하는 동안 K 목사는 답변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주제를 자꾸 바꾸려하고, 우리는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하였고 이에 K 목사가 마침내 승낙을 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다고 승인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MCF 창립예배를 5월 중에 드리자고 하면서 MEO 참가자가 MCF의 대표로 참가하기를 제의했습니다.

MEO 프로그램 참가와 MCF 설립에 대한 사항은 오직 총회장과 협의한 사항이며 이제 K 목사가 자국 정부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 동안 가졌던 제반 사항이 이와 같음을 볼 때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귀 사탄도 이 일을 넘보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하나님

스승의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최명진 성도
(디아스포라부)

어느덧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여섯 번 째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생소했던 땅, 그러나 청년인 나에게 희망이었던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난 스승은 2001



년 5월 하나원에서 만났던 '청소년학교'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스승은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오늘까지 대학의 강단에서 만나게 되었던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게 된 스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울교회에 출석하면서 디아스포라부에서 만나게 된 선생님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섯 해라는 나날을 보내면서 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었고, 알게 되었지만 아마도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훌륭한 스승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훌륭한 스승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오늘의 제 자신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자신을 일깨워 주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시고, 세계를 알 수 있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신 스승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종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서울교회 디아스포라부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스승들을 신앙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영아부 시작 주일예배 시간에 403호 베들레헴 홀에서

오늘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영아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아부가 시작된다. 영아부는 부모교육과 영아교육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영아들을 생애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게 된다.

영아부 대상은 0세부터 1세(12개월)의 어린이로 이혜순 권사가 부장으로 박창희 권사가 부감으로 우리교회 부목사 사모 전원이 교사로 섬기며 박금실 전도사가 유아부를 겸임하면서 지도하고 청년부 부지도 박혜원 전도사가 부지도로 함께 말씀과 기도도 어린이들을 양육하게 된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화) 한기총 신학위원회를 소집한다. 25일(금) 한국신학정보연구원의 평양대부흥운동 기념 성서학 학술 심포지움에서 논평을 한다.

■ 특담 : 4교구 강창균, 김명정 가정 (최영자 집사의 아들 가정)

■ 개업 : 임병권 집사(5교구) 노인전문요양원 '엘림사랑마루' 개원 T. 031-461-3288

최학인 장로(5교구) 인제종합동물병원 개원. 강원도 인제군청 옆. T. 033-461-3960 (5/22 개원예배)

■ 이사 : 백승갑 집사 박길자 집사(7교구) 중구 중림동 200 삼성사이버빌리지 108-201 T.508-8978

■ 주간 식당 봉사 : 에스더전도회 (5.20) 한나전도회(5.27)

■ 금주의 식사 : 최정인 집사 객산자 권사 가정
오길탁 집사 박정섭 권사 가정(자녀 결혼 감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5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일천독

-필사1회: 윤봉준 장로(9교구)

-2독-

유후자 권사 채복순 권사 김인식 권사 김종자 권사

-1독-

(1교구) 류장렬 집사 박상희 집사 박순자 권사

양춘경 집사 이사라 집사 장양일 집사 조순엽 집사

(2교구) 김미자 집사 박희서 집사 오종래 권사 이신정 권사 이응선 장모

(3교구) 양옥자 권사 윤숙지 집사 이경구 집사 이재순 성도 정소영 성도

(4교구) 김복녀 권사 임광우 성도

(5교구) 박창희 권사 성준경 장모 이관모 권사 최근자 권사

(6교구) 김병용 집사 김희진 권사

(7교구) 김태기 장모

(9교구) 김동렬 집사 이남성 집사 최영란 권사 최정숙 권사 한옥순 권사

(10교구) 김규성 집사 이점숙 권사 진돈 장모

(11교구) 김하니 선생 노영숙 권사 백영희 권사

이민화 권사 이영자 권사 전배호 권사 한상준 집사

(12교구) 김경철 장모 김광신 장모 김숙자 권사

(13교구) 문홍식 성도 박옥 집사 방효철 장모 유봉여 권사 이옥선 집사

(14교구) 객산자 권사 김우숙 권사 김재중 집사 정미연 집사

(일반필사2독) 2교구 김영호 집사

(일반1독) 한세희(조등부)

유치부 학부모 일일교사 행사 20일(주) 702호에서

유치부에서는 스승의 주관을 맞아 이번 주일(20일) 1,2부 예배시간에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공과공부를 직접 가르치는 학부모 초청 일일교사 행사를 갖는다. 유치부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영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교회와 가정이 신앙교육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바다부 수화찬양팀 입상

지난 5월13일 신일교회(담임: 이광선 목사)에서 한국 장로교 농아선교 61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전국 수화찬양대회가 전국의 10개 수화찬양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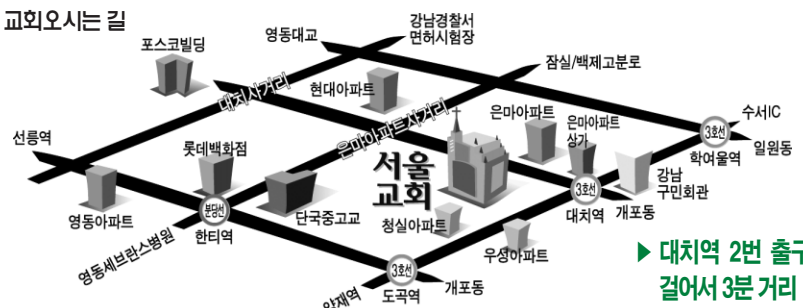
우리교회 에바다부는 5명이 참석하여 3위에 입상하였으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상패수여 및 수화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한마음·한가족 전교인 체육대회 위하여
4. 목회자 신학세미나, KIMCHI 세미나 위하여

■ 교회외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